

---

# 세계 석유시장 모니터링

---

2016. 11. 4

에너지경제연구원  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

## □ 주요 변수

- 향후(2016~17년)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추이, OPEC의 생산정책, 세계경제 회복 여부와 달러화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
  - 2017년 비OPEC 원유생산은 유가 상승과 신규 유전 가동 등으로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전년보다 30만b/d 증가 전망
  - OPEC은 감산보다는 생산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
  - 세계 석유수요는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겨울철 난방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0만b/d 증가 전망
  - 달러화 가치는 연준(Fed)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중앙은행(ECB) 및 영국은행(BOE)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강세 유지 예상
- 단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는 11월 OPEC 총회 결과와 12월 미국 연준(Fed)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금리 인상 여부
  - OPEC은 11월 총회에서 14개 회원국별 생산한도를 결정한 후 실제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
  - 미국 연준(Fed)은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연기해 왔으나 12월 회의에서는 소폭의 금리 인상 예상

## □ 유가 전망

- 향후 유가는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사상 최고 수준으로 누적된 석유재고와 달러화 강세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  - KEEI는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평균 \$41.00/b(4분기 \$47.08/b), 2017년 평균 \$51.68/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.
    - \* 2016년 평균 가격을 종전(7월) 전망치(\$40.49/b) 대비 \$0.51/b 상향 조정
-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국제유가를 2016년보다 \$7~10/b 높은 수준으로 전망
  - 2016년 연평균 유가 전망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1~0.9/b 상향 조정함.

### < 해외 주요 기관의 원유가 전망 >

(단위: \$/b)

| 전망기관 <sup>1)</sup>       | 기준유종 | 2016  |       | 2017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전월대비<br>조정 <sup>2)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4/4   | 연간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| 연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IA<br>(16.10.13)        | 브렌트  | 48.00 | 43.43 | 48.00 | 49.03 | 52.00 | 54.97 | 50.99 | +0.89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0 | 42.78 | 47.00 | 48.03 | 51.00 | 53.97 | 49.99 | +0.86                    |
| IHS Energy<br>(16.10.13) | 브렌트  | 47.95 | 43.27 | 48.34 | 52.02 | 53.66 | 53.31 | 51.83 | +0.14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8 | 42.63 | 47.35 | 50.88 | 52.43 | 51.92 | 50.65 | +0.18                    |
| EIU(16.10)               | 브렌트  | 48.00 | 43.70 | 50.00 | 53.00 | 55.00 | 56.00 | 53.50 | +0.37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4 | 42.83 | 49.00 | 51.94 | 53.35 | 54.32 | 52.15 | +0.36 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( )안은 전망 시점, 2) 2016년 연평균 가격에 대한 조정

# 1. 이슈 분석

## □ OPEC의 감산 합의 배경과 향후 전망

- ▷ OPEC의 감산 합의(9.28일)는 7월에 나타난 유가 하락과 회원국들의 재정 악화, 사우디의 정책 변경 등이 배경이 되어 성사된 것으로 분석
- ▷ OPEC이 11월 OPEC 총회에서 14개 회원국의 국가별 생산한도를 결정한 후 실제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
- ▷ OPEC은 느슨한 형태의 합의를 통해 생산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

- OPEC은 9월 28일 알제리에서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생산량을 32.5~33.0백만 b/d로 감축하기로 합의함.
  - 개별 회원국의 생산한도는 11월 30일 OPEC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며,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의 감산 참여도 요청할 계획임.
    - \* 총회 이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 고위급위원회(HLC; High Level Committee) 운영
  - OPEC의 감산 규모는 9월 생산량 33.4백만b/d를 기준으로 0.4~0.9백만 b/d에 달함.
  - OPEC은 10월 28~29일 HLC 회의 및 비OPEC 산유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감산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함.
    - \* 총회 이전인 11월 25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
- OPEC의 감산 합의는 7월에 나타난 유가 하락과 회원국들의 재정 악화, 사우디의 정책 변경 등이 배경이 되어 성사된 것으로 분석됨.
  - 2016년 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7월 들어 다시 하락하면서 OPEC 산유국들의 우려가 커짐.
    - \* 두바이유 가격(\$/b): 22.83(1.21일) → 48.98(6.9일) → 38.54(8.3일)
  - 사우디와 OPEC은 그동안 저유가를 용인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재정 상황은 악화됨.
    - \*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는 베네수엘라의 8월 초 제안으로 OPEC은 9월 IEF(국제에너지포럼) 기간 중 비공식회의 개최를 결정(8.8일)
  - OPE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우디가 예상 밖으로 종래 입장과 달리 이란·리비아·나이지리아의 생산 증대 필요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함.
    - \* 사우디가 OPEC 회원국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생산 공조를 주장함에 따라, 올해 4월 추진했던 생산동결 합의는 이란의 불참을 이유로 사우디에 의해 무산

- OPEC의 감산 합의는 국가별 쿼터나 이행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짐.
  - 알제리 합의 후 원유선물시장에 투기성 자금 유입이 급증해, Nymex의 WTI 원유에 대한 비상업 순매수 규모가 2주 동안 무려 42% 증가함.
    - \* WTI Non-Commercial 순매수(계약): 291,646(9.27일) → 413,650(10.11일)
  -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합의 직전 가격보다 \$6~7/b 정도 상승한 수준인 \$49/b에서 형성됨.
    - \* 두바이유 가격(\$/b): 42.37(9.28일) → 48.97(10월 평균)
- OPEC과 러시아가 11월 OPEC 총회에서 14개 회원국의 국가별 생산한도를 결정한 후 실제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  - 이란은 제재 이전 수준인 4백만b/d 이상 생산해야 OPEC의 생산 공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.
  -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내전과 정정불안으로 각각 100만b/d, 40만b/d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나 상황이 개선되면 곧바로 증산하겠다는 입장임.
  - 이라크는 알제리 회의 이후, 자국 생산량이 과소 집계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, IS와의 전쟁을 이유로 감산 합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    - \* OPEC은 생산한도 결정 시 회원국이 보고하는 생산통계(Direct Communication)가 아닌 외부기관이 집계하는 생산통계(Secondary Source)를 활용

**< OPEC 국가별 생산: 회원국 보고와 외부기관 집계의 차이(2016년 9월) >**

(단위: 천b/d)

|              | 외부기관 집계(A)   | 회원국 보고(B)    | 차이(B-A)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알제리          | 1,085        | 1,182        | 97         |
| 앙골라          | 1,766        | 1,649        | -117       |
| 에콰도르         | 546          | 560          | 14         |
| 가봉           | 211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인도네시아        | 722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이란           | 3,655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
| <b>이라크</b>   | <b>4,455</b> | <b>4,775</b> | <b>320</b> |
| 쿠웨이트         | 2,826        | 2,970        | 144        |
| 리비아          | 363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
| 나이지리아        | 1,524        | 1,385        | -139       |
| 카타르          | 659          | 610          | -49        |
| 사우디아라비아      | 10,491       | 10,650       | 159        |
| UAE          | 2,994        | 3,186        | 192        |
| <b>베네수엘라</b> | <b>2,089</b> | <b>2,334</b> | <b>245</b> |
| 합계           | 33,394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

자료: OPEC, Monthly Oil Market Report, October 2016.

- 베네수엘라도 자금 부족으로 원유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, 자국 생산량의 과소 집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.
- 비OPEC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 정부가 OPEC의 감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러시아 석유회사들의 협조 여부는 불확실함.
  - \* Rosneft사 Igor Sechin 회장은 감산 계획이 없다고 언급(10.11일)
- OPEC 회원국들 및 러시아가 국별 감산 규모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감산 이행은 별개 문제이며,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.
- OPEC은 느슨한 형태의 합의를 통해 생산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.
  - OPEC의 결정은 일부 국가에 대해 생산쿼터 배정을 면제하거나 생산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총 생산한도만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큼.
  - 사우디가 과거와 같은 대폭적이고 희생적 감산은 아니더라도 걸프지역 산유국들과 함께 일정량의 감산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음.
  - OPEC은 느슨한 생산목표 합의로 최소한의 카르텔 기능을 유지하고 유가를 지탱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수급 조절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.
    - \* OPEC은 최근 총회('15.12월, '16.6월)에서 생산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
- OPEC이 11월 총회를 통해 현 수준에서 생산을 동결한다면 석유수급이 점차 균형을 회복하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 - 2017년 대OPEC 원유수요는 최근 생산 수준과 비슷한 평균 33.4백만b/d로 예상되어 OPEC이 증산을 억제할 경우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음.

#### < 대OPEC 원유수요 전망 >

(단위: 백만b/d)

|                   | 2016 | 2017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연간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
| 석유수요(A)           | 96.3 | 96.8 | 96.9 | 98.1 | 98.2 | 97.5 |
| 비OPEC 원유공급(B)     | 56.6 | 56.6 | 57.0 | 57.4 | 57.2 | 57.0 |
| OPEC NGL공급(C)     | 6.9  | 7.0  | 7.0  | 7.1  | 7.1  | 7.0  |
| 대OPEC 원유수요(A-B-C) | 32.7 | 33.2 | 32.9 | 33.7 | 33.9 | 33.4 |

자료: IEA, Oil Market Report, October 20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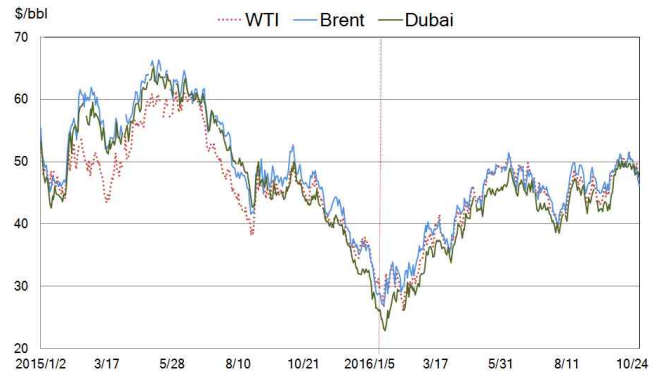
- 국제유가는 석유수급의 균형 회복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나, 2014년 이후 계속된 재고 누적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.
  - \* 가능성은 낮지만, OPEC과 러시아가 감산에 전격 합의하거나 합의 자체가 무산 되는 경우, 총회 직후인 12월의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 또는 급락 예상

## 2. 국제유가 동향 및 변동 요인

< 국제 원유가격 추이 (\$/b) >

| 유 종   | 2015  | 2016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10월   | 평균    |
| 두바이   | 50.69 | 30.51 | 43.23 | 43.18 | 48.97 | 40.08 |
| Brent | 52.15 | 33.94 | 45.65 | 45.80 | 49.49 | 42.61 |
| WTI   | 48.64 | 33.35 | 45.53 | 44.86 | 49.85 | 42.22 |

자료: www.petronet.co.kr, Reuters



### □ 국제유가 추이(8~10월)

- 두바이 원유가는 영국 브렉시트 투표 이후 \$38.64/b(7월 29일)까지 하락했으나 OPEC의 감산 합의 및 러시아의 공조 시사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\$50.07/b(10월 7일)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\$49/b 수준을 꾸준히 유지함.
- (OPEC 감산 합의) OPEC이 9월 26~28일 알제리 국제에너지포럼(IEF)의 비공식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원유감산의 기본적인 틀에 합의
  - \* OPEC은 전체 회원국들의 원유생산을 8월의 33.24백만b/d보다 최대 74만b/d 감소한 32.5~33.0백만b/d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, 회원국별 산유량 배분은 OPEC 11월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.
  - \*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 회의(10.28~29)에서 OPEC 회원국별 감산 논의가 교착되면서 비OPEC 공조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가 무산됨.
- (미국 금리인상 지연) 미국 연준(Fed)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달러화 강세를 제한, 하지만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
  - \* 미국 연준의 9월 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(9.20~21)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되었으나 연준 의장은 미 하원 청문회(9월 28일)에서 연내 인상을 시사함.
  - \* 시장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 일정 고려하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함.
- (공급과잉 지속) IEA는 3분기 세계 석유공급이 수요를 30만b/d 초과했으며, 9월 전 세계 공급은 전월 대비 61만b/d 증가한 것으로 발표
  - \* OPEC 9월 공급은 이라크, 리비아의 원유생산 증가로 전월보다 16만b/d 증가하고 비OPEC 공급은 러시아에서만 40만b/d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

## □ 유가 상승 요인

| 요인                | 배경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과잉 우려<br>완화     | OPEC 감산<br>논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PEC, 알제리 국제에너지포럼(IEF)의 비공식회담을 통해 OPEC 산유량을 24~74만b/d 감축하기로 합의(9.28)</li> <li>러시아, 세계에너지총회(WEC)에서 OPEC 관계자들과 회담 후 산유량 제한 동참 피력(10.10)</li> <li>※ 한편, 오스트리아 회의(10.28~29)에서는 회원국별 감산 배분 및 비OPEC 참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 실패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| 공급차질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리케인 Hermine으로 미국 멕시코만 원유생산 4일간(8.29~9.1) 24.3만b/d 차질 발생</li> <li>허리케인 Matthew로 미국 동부 지역 원유수입 차질 및 석유저장시설 가동 중단(10.7~9)</li> <li>나이지리아, 9월 중순 이후 무장세력(NDA와 NDGJM)의 송유관 공격 재개로 원유생산 회복 지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달러가치 하락<br>(8~9월) | 미국 금리인상<br>지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 연준,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(9.21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유가 하락 요인

| 요인                 | 배경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과잉 지속            | 세계 공급 증가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EA는 10월 석유시장보고서(10.11)에서 3분기 공급이 수요를 30만b/d 상회하고 9월 공급은 전월보다 61만b/d 증가한 것으로 집계</li> <li>리비아 총리는 리비아 원유생산이 9월 30만b/d 수준에서 최근 60만b/d까지 회복되었다고 발표(10.23)</li> <li>미국 주간 원유생산, 850만b/d로 2주 연속 증가(10.21)</li> <li>Reuters는 OPEC 10월 원유생산이 전월보다 13만b/d 증가한 것으로 조사(11.1)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| 석유 시추기<br>증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 석유시추기 수는 10월 28일까지 13주 동안 67기 증가한 441기를 기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달러화 강세<br>(10월 이후) | 미국 금리인상<br>확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준 의장,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발언(9.28).</li> <li>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, 잠정치 기준 전분기 대비 2.9%(연율)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(10.28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향후 전망

#### □ 주목할 변수

- 향후(2016~17년)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추이, OPEC의 생산정책, 세계경제 회복 여부와 달러화 가치 등으로 예상됨.
  - 2017년 비OPEC 원유생산은 유가 상승과 신규 유전 가동 등으로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전년보다 30만b/d 증가가 전망됨.
  - OPEC은 감산보다는 생산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세계 석유수요는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겨울철 난방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0만b/d 증가가 전망됨.
    - \* 2015-16년 겨울철 이상 난동에 따른 기저효과가 2016-17년 겨울철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
  - 달러화 가치는 연준(Fed)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중앙은행(ECB) 및 영국은행(BOE)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강세 유지가 예상됨.
- 단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는 11월 OPEC 총회 결과와 12월 미국 연준(Fed)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금리 인상 여부임.
  - OPEC은 11월 총회에서 14개 회원국별 생산한도를 결정한 후 실제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  - 미국 연준(Fed)은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연기해 왔으나 12월 회의에서는 소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.

#### □ 유가 전망

- 향후 유가는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사상 최고 수준으로 누적된 석유재고와 달러화 강세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  - KEEI는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평균 \$41.00/b(4분기 \$47.08/b), 2017년 평균 \$51.68/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.
    - \* 2016년 평균 가격을 종전(7월) 전망치(\$40.49/b) 대비 \$0.51/b 상향 조정
  - 그러나 OPEC 산유국과 러시아의 전격적인 감산 합의 혹은 세계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의 심화는 추가적인 유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

**< 2016~17년 세계 석유 수급 밸런스 전망 >**

(단위: 백만b/d)

|       | 2016 |      | 2017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4/4  | 연간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
| 세계 수요 | 97.0 | 96.3 | 96.7 | 97.0 | 98.2 | 98.2 | 97.6 |
| 세계 공급 | 97.3 | 96.8 | 97.1 | 97.1 | 97.7 | 98.0 | 97.5 |
| 공급 과잉 | 0.3  | 0.5  | 0.4  | 0.1  | -0.5 | -0.2 | -0.1 |

자료: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10월 전망치

-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국제유가를 2016년에 비해 \$7~10/b 높은 수준으로 전망함.
- 2016년 연평균 유가 전망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1~0.9/b 상향 조정함.

**< 해외 주요 기관의 원유가 전망 >**

(단위: \$/b)

| 전망기관 <sup>1)</sup>       | 기준유종 | 2016  |       | 2017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전월대비<br>조정 <sup>2)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4/4   | 연간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| 연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IA<br>(16.10.13)        | 브렌트  | 48.00 | 43.43 | 48.00 | 49.03 | 52.00 | 54.97 | 50.99 | +0.89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0 | 42.78 | 47.00 | 48.03 | 51.00 | 53.97 | 49.99 | +0.86                    |
| IHS Energy<br>(16.10.13) | 브렌트  | 47.95 | 43.27 | 48.34 | 52.02 | 53.66 | 53.31 | 51.83 | +0.14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8 | 42.63 | 47.35 | 50.88 | 52.43 | 51.92 | 50.65 | +0.18                    |
| EIU(16.10)               | 브렌트  | 48.00 | 43.70 | 50.00 | 53.00 | 55.00 | 56.00 | 53.50 | +0.37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7.04 | 42.83 | 49.00 | 51.94 | 53.35 | 54.32 | 52.15 | +0.36 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( )안은 전망 시점, 2) 2016년 평균가격에 대한 조정

## 4. 석유수급

### □ 세계 석유수요 (백만b/d)

|              | 2016년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증감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 | 8월           | 9월           | 전월대비         | 전년동월대비      |
| 미주           | 24.75        | 25.41        | 24.63        | -0.79        | 0.28        |
| OECD 유럽      | 14.14        | 14.12        | 14.63        | 0.51         | 0.24        |
| 아시아·오세아니아    | 7.63         | 7.90         | 7.72         | -0.18        | 0.02        |
| <b>OECD</b>  | <b>46.52</b> | <b>47.43</b> | <b>46.98</b> | <b>-0.45</b> | <b>0.53</b> |
| 아시아          | 23.69        | 24.77        | 24.61        | -0.16        | 0.93        |
| 중동           | 9.29         | 9.41         | 9.36         | -0.05        | -0.21       |
| 남미           | 6.53         | 6.58         | 6.33         | -0.25        | -0.15       |
| 구소련          | 4.72         | 4.93         | 5.01         | 0.07         | 0.01        |
| 아프리카         | 4.53         | 4.46         | 4.53         | 0.07         | 0.18        |
| <b>비OECD</b> | <b>49.43</b> | <b>50.86</b> | <b>50.57</b> | <b>-0.29</b> | <b>0.77</b> |
| <b>전 세계</b>  | <b>95.95</b> | <b>98.29</b> | <b>97.55</b> | <b>-0.74</b> | <b>1.31</b> |

### □ 세계 석유공급 (백만b/d)

|                | 2016년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증감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 | 8월           | 9월           | 전월대비        | 전년동월대비      |
| 미주             | 18.47        | 18.86        | 19.04        | 0.18        | -0.19       |
| 유럽             | 3.29         | 3.19         | 3.30         | 0.11        | 0.29        |
| 중동-아프리카        | 2.95         | 2.97         | 2.92         | -0.05       | 0.03        |
| 아시아            | 19.82        | 19.51        | 20.09        | 0.58        | 0.14        |
| NGLs           | 7.59         | 7.76         | 7.75         | -0.02       | 0.61        |
| refinery gains | 2.60         | 2.40         | 2.40         | -           | 0.10        |
| <b>비OPEC</b>   | <b>57.84</b> | <b>57.79</b> | <b>58.61</b> | <b>0.82</b> | <b>1.11</b> |
| 사우디            | 10.67        | 10.63        | 10.65        | 0.02        | 0.42        |
| 이란             | 3.65         | 3.68         | 3.71         | 0.03        | 0.82        |
| 이라크            | 4.29         | 4.42         | 4.40         | -0.02       | 0.02        |
| OPEC 원유        | 33.10        | 33.22        | 33.65        | 0.43        | 0.93        |
| NGLs           | 6.83         | 6.86         | 6.94         | 0.08        | 0.15        |
| <b>OPEC</b>    | <b>39.93</b> | <b>40.08</b> | <b>40.59</b> | <b>0.51</b> | <b>1.07</b> |
| <b>전 세계</b>    | <b>97.76</b> | <b>97.88</b> | <b>99.20</b> | <b>1.33</b> | <b>2.18</b> |

### □ 대OPEC 원유수요 및 재고증감 (백만b/d)

|            | 2016년 |       |       | 증감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 | 전월대비  |
| 대OPEC 원유수요 | 31.28 | 33.64 | 32.00 | -1.64 |
| 세계 재고증감    | 1.82  | -0.41 | 1.65  | 2.06  |

자료: Energy Intelligence, Oil Market Intelligence 10월호, 2016. 10. 14